

월간 주요 이슈 1

KOTITI시험연구원 편집(2023. 7. 21.)

KOTITI, 반려동물산업의 기틀을 다진다 !

- 코엑스에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세미나 개최

-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 7월 케이펫페어가 열린 코엑스 컨퍼런스룸 E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위한 표준정책'반려동물산업을 위한 표준정책 표준정책 세미나'를 열고 100개 표준산업분류 발표와 최근 펫시장의 기술력과 트렌드 정보 공유 등 반려동물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1주제로 발표한 “최신 펫테크 기술동향”은 박준호전문위원(LG전자)이 ICT접목, 디지털화, 양방향통신, 펫플랫폼, 구독모델로 대표되는 최신 기술동향을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 이번 정책세미나의 주된 발표내용인 “반려동물 용품·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전략”은 추진배경, 국내외 표준여건, 산업분류체계(안), 표준전략 및 계획 등에 대하여 KOTITI시험연구원의 김숙래 단장이 발표하였다.
- 급증하는 반려동물 수요와 더불어 다양한 펫 용품 및 서비스 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품질(안전)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불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펫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세부 표준화 대상품목 선정 및 해외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소비자와 관련업계가 인정하는 품질(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시중에 거래되는 품목, 펫용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성, 시급성 및 성장성을 기준으로 10대 대분류, 31대 중분류, 100대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표준화 우선순위를 발표, 100대 품목에 대하여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대표성 있는 인증기관을 구심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관련 제품의 산업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 KOTITI시험연구원 이상락 원장은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을 포함하여 중국조차도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펫용품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반려동물은 이미 인간과 너무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 관리와 마찬가지로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정책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 [참고] 펫용품·서비스 표준품목 및 표준화 우선순위

◎ 펫용품
표준품목
선정(5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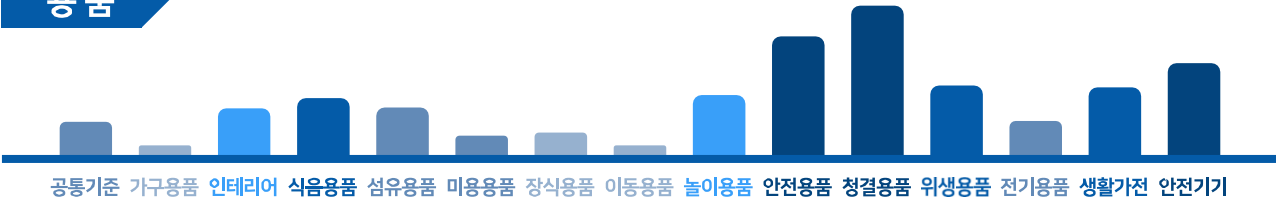
생활	공통기준, 가구용품, 인테리어, 식음용품
패션	섬유용품, 미용용품, 장식용품
활동	이동용품, 놀이용품, 안전용품
청정	청결용품, 위생용품
전자	전기용품, 생활가전, 안전시스템

◎ 펫서비스
표준품목
선정(50종)

생애	출생, 등록, 장례서비스
건강	건강관리, 보험, 미용서비스
교육	교육, 훈련, 위탁서비스
여행	숙박, 교통, 관광서비스
문화	전시, 행사, 사회, 구독서비스

표준화 우선순위 (중분류)

용 품



서비스

